

사설

왜 문화재 보호해야 하나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예견한다. 주지하다시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살았던 한 시대를 통해 이루어 놓은 정신적·물질적인 일체의 의식주를 비롯하여 기술 학문 예술 도덕 종교 등 여러 부분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런 생활양식의 흔적들을 우리는 문화재라고 한다. "문화활동의 소산으로 문화 가치가 있는 산물"이라고 문화재를 정의하는 뜻도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1월10일 법률 961호로 문화재보호법이란 것을 만들었다. 이 법의 1조에 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문적인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뜻은 이런 원문적인 기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화재의 훼손이나 도난, 개작과 같은 범죄를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아끼자는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왜 문화재를 아끼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면 한낱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비단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캠페인 있는 사회적 병폐나 개인들의 부도덕성 등을 바라보면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는 의식이 똑바르지 않고서 어떤 이야기든 구두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인가. 다시 되돌아보자. 입으로는 세계적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런 말로만 한다고 세계문화유산이 되는것은 아니다.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문화재를 잘 활용하

고 있는가.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지. 나아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재청 감사결과를 보면 보물로 지정된 불상이 마구잡이 용접으로 훼손되는가 하면 발굴된 유물 수십만 점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거나 또 발굴된 유물도 보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식되고 있다고 한다. 보물로 지정된 불교경전 주점은 행방조차 묘연하다는 것이다. 범죄다. 이렇고도 우리가 문화민족 운운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난을 이기기 위해 문화 운운하는 것에 관심을 돌리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시기였다고 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도난 당하는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똑같은 의식과 사고 그리고 행태적 우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바탕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문화재관리법의 제1조를 지킬 수 있는 바탕의식과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전국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단기간에는 안될지 모르지만 이 바탕을 키우지 않고서는 어떤 훼손을 막을 방법도, 어떤 활용도, 어떤 기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그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에 대한 전국민적인 바탕의식이 싹트고 자랄 때까지 차라리 문화재 발굴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역설적인 생각도 해 본다. 문화재는 우리민족 모두의 것일 뿐 아니라 인류의 자산이며 미래의 후손을 위해 온전히 전해 주어야 하는 아주 귀한 것이다.

조계사 성역화 계획대로 될까

조계종사태 여파 주요사업 연기·수정 불가피

승가대 김포이전 내년초 예상... '선원총림' 발간도 올 넘길듯

10월1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로 야기된 조계종 분규의 여파로 조계종단의 주요 사업의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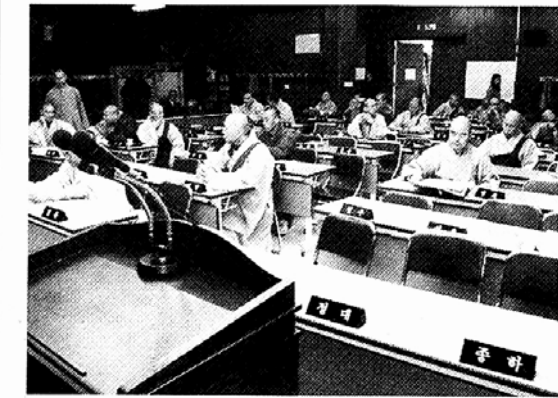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물론 대륙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불사. 보물로 지정된 불교경전 주점은 행방조차 묘연하다는 것이다. 범죄다. 이렇고도 우리가 문화민족 운운할 수 있을까.

10월1일 법원의 조계종 총무원장 부존재 판결로 야기된 조계종 분규의 여파로 조계종단의 주요 사업의 연장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조계사 성역화사업: 조계종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 기본설계에 들어가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기본설계를 이달 안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새 총무원장 정대승이 선거공약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제시해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 등 중단화 조정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현안의 진행 과정을 점검한다.

조계사 성역화사업: 조계종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 기본설계에 들어가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기본설계를 이달 안에 마치고,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새 총무원장 정대승이 선거공약에서 '불교회관 건립'을 제시해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면 등 중단화 조정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총무원장선거 후유증 탓일까. 성원이 안돼 열리지 못하고 폐회된 조계종 145회 정기중앙총회.

조계종 총회 선거후유증 성원미달 거듭 자동폐회 예산심의 임시총회 열어야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범등)가 총무원장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총회는 16, 18일 145회 정기중앙총회를 속개하려 했으나 이를 연속 성원이 미달돼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자동 폐회됐다. 개회 첫날인 5일 안건심의 순서를 정하고 곧바로 휴회, 총무원장선거 이후 속개키로 했으나 성원미달 사태를 거듭했다. 16일 오전, 회의 예정시각을 30분 가량 넘기자 의장 범등스님은 "어제 총무원장 선거를 끝내 많은 의원들이 심적인 부담도 크고 지쳐

있는 것 같다. 18일 속개하도록 하겠다"며 휴회를 선언했다. 18일에는 오전에도 성원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하자 오후에 속개키로 했으나 끝내 회의는 무산됐다. 2시 속개키로 했던 오후 회의는 의사정족수인 39명(77명의 과반수)에서 1명이 모자라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 심의, 총무행정 감사 등 중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총무원장선거에서 정대승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총회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총회위원은 "선거와 총회는 엄연히 다르지 않다. 따질 일이 있으면 회의에 나와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장 범등스님은 "또 총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을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정성운 기자

"강원 교재 통일-졸업고사 실시" 17일 전국강원 교직자회의서 결의

조계종 강원(지방승가대학)의 교재가 통일되고, 졸업고사가 시행된다. 전국강원교직자회의(회장 지오·해인사강주)는 17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원 전문과정(치문, 사집, 사교, 대교)의 기본·필수 과목화(선택과목은 자율), 교재의 오달자 및 출간·번역 주체와 관점 등을 연구·시행할 '교과 정비·편찬 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각 교육기관별로 졸업고사 시행에 따른 재반 여건을 조성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강원교직자회의는 그러나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제안한 본

btn 이사회 소집 놓고 이사측 허문도세 '이견'

22일로 연기됐던 불교TV 제30차 이사회가 허문도 등기상 대표이사에 의해 12월 6일로 연기되자 효강 총지중 법장위원장, 신하·범하스님 등 이사 3인은 17일자로 이사회 소집 통보서를 내고 오는 24일 오후2시 불교TV 10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통보서에 따르면 허문도 등기상 대표이사는 특별감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연기사유로 이사회 소집을 해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24일 이사회에서는 불교TV 경영 정상화를 위해 허문도씨의 자격을 정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영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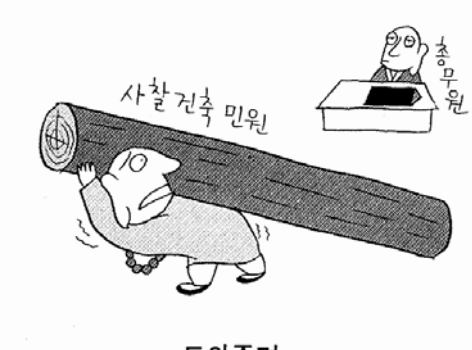
태고종 10대 총회의원 관료안 지역, 현직순

△조완원(서울동부, 서울 용작사 주지, 신) △이보봉(서울중부, 중서 부총무원장) △송종원(서울남부, 서울 성주암 회주) △정일환(서울북부, 서울 수도사 주지) △강정봉(경기동부, 양평 덕해암 주지) △김법정(경기남부, 수원 대원사 주지, 신) △정성오(경기남부, 안성 성운사 주지, 신) △이해각(경기북부, 파주 약수암 주지, 신) △김학성(부산, 부산 총무원장, △임자광(부산, 부산총무원 부위원장, 신) △정대은(인천, 인천총무원장) △김원태(대전, 대전총무원장) △이도안(대전, 대전총무원 부위원장) △박동과(울산, 울산 대원사 주지) △박근욱(강원, 중앙포교위원장, 신) △박문주(강원, 태백 삼척사 주지) △박문봉(강원, 일주 용덕사 주지, 신) △박석수(충북, 충북총무원장, 신) △김강성(충북, 괴산 보타사 주지, 신) △김진명(충북, 재현 원각사 주지, 신) △김일모(충남, 충남총무원 부위원장, 신) △박정담(충남, 충성 천국사 주지, 신) △유남파(전북, 전북총무원장) △최진관(전북, 완주 관음사 주지) △정수홍

(전북, 임실 백룡사 주지, 신) △윤법천(광주·전남, 광주 선암사 주지) △김경호(광주·전남, 장흥 장일사 주지) △전동호(광주·전남, 여수 관음사 주지) △김일우(대구·경북, 경북 중무원장) △김재만(대구·경북, 대구 만성사 주지) △최혜달(대구·경북, 대구 보은사 주지) △전법달(대구·경북, 마산 원각사 주지, 신) △이원봉(경남, 경남총무원장, 신) △권우애(경남, 김해 천불사 주지) △김수암(제주, 제주총무원장) △권형은(제주, 제주 청정사 주지, 신) △박인공(봉천사, 봉천사 주지) △김대운(봉천사, 봉천사 주지) △최희태(백련사, 백련사 주지), △김준경(백련사, 증승원 주지) △김삼문(안성사, 안성사 주지) △정지하(선암사, 정수원장) △박철문(선암사, 양주 기원정사 주지) △최혜호(백련사, 전 총무원장) △송정호(해인, 일본 백룡사주지) △박문정(비구니회, 비구니회장, 신) △박대각(교인협의회, 교인회장) △이한권(전국신도회, 충북교구신도회장, 신) △서철화(직능직, 교시위원장) △김동호(직능직, 호계위원장) △유유담(직능직, 중앙연수원장) △정원봉(직능직, 청주 보현사 주지, 신) △김법선(직능직, 불국사 주지) (충청권역)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현대만평



도와주면...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奉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대법회 祝

계수 합장 하옵고, 무한평명이 걸림없이 범제를 비추고 있습니다.

불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옵도 본래 없지만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려는 이때 본종 제5대 총무원장 지천당 법선종사 취임대법회를 교계 원로근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자 하니 대작불사에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해광이 함께 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일시: 불기 2543년 11월 26일 금요일(음력 10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 문의 (02)733-4445~6

| | | | |
|-------------------------------------|--|--|---|
| ■ 증 명 : 일화 대중사 금암 대중사 환복 대중사 | ■ 고 문 : 혜정 혜안 혜우 정각 효성 무주 월산 탄공 승덕 법성 호암 혜봉 가행 벽송 | ■ 지문위원 : 필종 만수 명진 승도 근원 도승 혜도 법천 성학 용락 창교 운산 상묵 | ■ 봉행위원 승정 지월 원봉 도명 영산 타공 능허 석호 혜정 백운 성초 혜천 성진 만성 일정 해덕 해월 법성 혜명 지오 성오 자오 연오 오현 고산 선종 봉안 혜월 법상 혜수 수덕 명관 무학 혜월 도성 성수 의정 성우 범홍 도신 도인 성신 홍인 해송 도광 삼해 원정 대연 무애 경업 보명 석각 도행 도산 립각 지현 진허 법전 도선 도봉 도명 고원 혜성 범우 범정 진원 청호 자운 범광 도전 상린 보은 |
|-------------------------------------|--|--|---|

불기 2543년 11월 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 5대 지천당 법선종사 총무원장 취임식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회 광 합장